



주간 제7939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음력 8월 19일)



무등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객들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9일 오전 등산객들이 탐방로를 따라 정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2011년 첫 개방행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26회 개방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전남, AI전용 데이터센터 품었다

### 오픈AI·SK, 서남권에 공동 추진 공식화...협력 체계 가동 도, 교통·교육·정주 여건 등 개선...광주시와 시너지 기대

전남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한다. 글로벌 AI 선도기업 오픈AI와 SK그룹이 전남 서남권에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분기점이 열렸다는 평가다.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전남의 AI-에너지 융합산업 생태계를 가속할 전환점으로 기대가 모인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설립 의사를 공식화했다. 뒤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픈AI와 SK그룹의 전남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알렸고, 오픈AI와 SK텔레콤은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전남을 글로벌 AI 클러스터 핵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오픈AI는 전남(서남권)과 포항(동남권)에 각각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남에서는 SK텔레콤과 함

께 구축·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최적 입지로 급부상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안정적 용수, 부지, 우수한 접근성 등 데이터센터 핵심 요건을 두루 갖춘 데다, 정부의 AI·RE100 국가산단 정책과 결을 같이해 에너지 자립형 AI 거점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이번 발표를 "역대급 쾌거"로 규정하고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 일지에서 "전남은 재생에너지와 AI 전략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교통·교육·정주 여건 등 기업 환경을 대폭 개선해 성공적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정주 지원을

### 지역 국회의원이 전하는 추석 민심

## "경기 불황 속 소비쿠폰 활기 정부여당 개혁 기대감 높아"

정권교체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더블 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은 정부 여당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았다고 9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 속에 2차 민생 소비쿠폰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바람과 농업 현장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 차질의 우려도 교차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는 여론이 여전하며, 대농업재해의 인정과 대책, 그리고 농안법·양곡법 등 시행령에 지역 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민심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신정호 의원(나주·화순)은 "지역 민들은 내란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새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인 '5극3특'에 대한 기대도 무척 높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해수부 이전과 거덕도 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한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은 "정 치 공방엔 큰 관심이 없어 보였고, 대 신 윤석열 퇴출 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이제 좀 안심'이라는 반응이 많았다"며 "시장은 예전보다도 높았다"고 추석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요구 많아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전략 큰 관심

서 의원은 "수확 기 짚은 비로 영농에도 차질을 빚어 동내 곳곳에서 걱정과 근심이 더해졌다. 기후변화 우려와 더불어 폭우 피해 지역의 조기·항구적 복구 지원 요청도 거뒀다"며 "내년엔 더 심할 것"이라는 농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이 진하게 퍼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5일장에는 소비쿠폰 정책 영향으로 모처럼 활기가 돋보였다"며 "실제 소비 증진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인구 감소 등 문제로 일부 농촌에서는 사용할 곳이 없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고 말했다.

할기했지만 완전 회복까지 아직 멀었고, 특히 소비 양극화가 걱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북구갑) 의원은 "정치 갈등보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광우 발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 5일 무안공항 분항소를 찾아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규명과 재고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민생회복지원금 영향으로 전 통시장 방문객과 매출액이 확연하게 늘어난 모습"이라며 "긴 연휴 때문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이 10~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고향 마을이 북적였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목포)은 지난 8일 "지금 개혁 안 하면 언제 하겠소?", '아무 지게 밀어 부치쇼. 내란종식 3대 개혁 지금 못하면 민주당도 빠이빠이.', '그러나 과하면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하시고 속도 조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라는 지역민의 얘기를 가감 없이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의원은 "해남군의회의장은 군의원들과 '깨서무늬병이' 해남에도 발생, 논으로 현장조사 나간다. 에쿠, 왜 이때 깨서무늬병이 오니"라고 적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시, 광천동 재개발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 창의적 설계 가능...내년 하반기 착공·2029년 말 완공 목표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광주특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개선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서 정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기준이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특색 없는 아파트 일색인 도시를 바꾸기 위해 서울과 세종, 울산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자체마다 앞다퉈 지정하는 추세이며, 광주에서는 광천동 재개발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24만3649㎡ 면적 부지다. 이곳에는 최고 45층 5000여세대 아파트와 부대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의 높이 제한, 인동거리(건축물 사이에서 돌아야 하는 최소한의 간격) 등 기준을 완화했다. 일부 단지의 층수를 33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아파트 높이의 0.8~1배인 인동거리를 0.7~0.8배로 줄이는 등 고층과 중층이 혼재된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이 연출되게 했다.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4월 세대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등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 광주 살아가? 이 앱 # 들어봤어?

##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 모두의 쿠폰, 잇샵 #

